

Global Goings-on

미국

미국의 고령, 저출산과 인구감소

Double bind

- ▶ 미국은 높은 출산율과 많은 이민자 유입 덕분에 고령 인구의 연금과 건강 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음
 - 그러나, 2007~09년 닥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 2007년 이래로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, 이민자 수도 감소하고 있음
 - 또한,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노동력도 감소
- ▶ 지난 12월 12일, 인구조사국은 미국의 인구가 2050년까지 27% 상승하여 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
 - 이는 2008년 예측된 인구수보다 9% 하락한 수치
 -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60년까지 현재의 14%에서 22%까지 증가하고, 노동 인구는 63%에서 57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▶ 새롭게 예측된 인구수는 출산과 이민에 대한 최근 추세를 근거로 한 것
 - 가임 여성 인구 천명 당 출생아 수(일반출산율)는 63명까지 하락해 192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임
 - 이는 가임 여성 인구의 평균 연령이 상승했기 때문
 -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(합계 출산율) 또한 1.9명으로 하락하여 인구대체 출산율인 2.1명에도 못 미침
 - 미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, 2007년 이래로 급격히 하락
- ▶ 이민자의 유입과 이들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미국의 인구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나, 이 또한 감소하기 시작
 -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, 2010년 가임기 여성 이민자 천명 당 출생아 수는 88명으로 이는 102명에서 하락한 수치
 - 인구 조사국의 추산결과, 2011년 이민자의 수는 7십만 명으로 2006년부터 28% 감소함
- ▶ 출산율과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
 -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

줄어 들고,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서 많은 커플들이 아이 갖기를 미루고 있음

- ▶ 정책 입안가들은 향후 2~3년 내에 출산율과 이민자 수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인 듯
 - 2011년 초혼 평균 연령이 남성의 경우 28.7세, 여성 26.5세로 상승했으며, 40대 초반 여성 중 아이를 갖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
 -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
 - 노동력의 성장도 경기침체 이래 급격히 둔화되어 노동인구가 5% 성장했던 2007년 말보다 단지 1%만이 더 성장함
- 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점차적으로 늘려 미국인들이 더 오래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, 더 많은 이민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
 - 두 가지 방안 모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, 출산율과 이민자 감소라는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

2012년 12월 15일 / The Economist
(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ews/usa/21568398-falling-birth-rate-and-much-slower-immigration-presage-long-term-trouble-ahead-double>)

유엔

유엔, 전국민 건강보험에 관한 결의안 채택

UN adopts momentous resolution on universal healthcare

- ▶ 지난 12일 유엔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
 -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미국, 영국, 남아프리카와 태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음
- ▶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2천 5백만 가구가 빈곤가구로 전락하고 있음
 - 의료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3십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관리와 교육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
- ▶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전국민 건강보험은 2015년 이후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유엔 고위급 패널의 의제가 될 것
 - 전국민 건강보험을 위한 재원마련은 현재 수익자 부담금, 건강보험료 또는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최빈곤층은 이를 지불한 여유가 없음

- 재원조달은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

▶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예

- 태국은 2002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태국 국민의 약 99%가 건강 예방, 1차 진료,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, 방사선 치료 및 에이즈 치료 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음

- 인도네시아, 필리핀 및 중국은 보험료에 기반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여 거의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

▶ 그러나, 빈곤한 국가들이 이러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할 것

- 잠비아는 건강보험제도에 꾸준히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외부의 원조가 재원 조달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힘

2012년 12월 13일 / The Guardian

<원문링크: <http://www.guardian.co.uk/global-development/2012/dec/13/un-momentous-resolution-universal-healthcare?intcmp=122>>

스페인

스페인, 연금 개혁에 박차

Spain plans deeper pension reform to meet EU demands

▶ 국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라는 EU의 요구에 따라 스페인은 곧 연금 개혁을 강화할 예정

- 국가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지 않는 것과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EU가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예전부터 요구한 내용

- 연간 연금 비용 1천억 유로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안은 2013년 초 쫄 의회에 상정될 예정

▶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15년간에 걸쳐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지 않도록 해서 연금 지급액을 동결시키는 것

- 개혁안은 아직 각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, 개혁안 중 조기 은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짐

- 소식통들은 개혁안에 대해 각료들의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회에 상정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

▶ 스페인 이외에도 기대여명의 상승으로 연금 제도를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상당수의

유럽 국가들이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, 스페인의 경우, EU국가 중 가장 높은 실업률(25%) 때문에 공공 연금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공공 연금 재정이 특히 취약함

- 스페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연금 지급을 위해 한 보험 기금에서 4십 4억 유로를 마련해 사용했고, 11월에는 유동성을 높이

기 위해 연금 유보 기금(pension reserve fund)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

2012년 12월 12일 / Reuters

<원문링크: <http://www.reuters.com/article/2012/12/12/us-spain-pensions-idUSBRE8BB0VF20121212>>